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 서남권에서 시작한다

- SK, 삼성 등 주요 기업 서남권에 총 896조원 규모 투자 -
-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총 800조원 투자) 총력 지원 위한
반도체 특별위원회 / 반도체 혁신 지원단 설치 -
- 지방투자를 지역성장으로 연결하는 서남권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30(화)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주요 기업들의 서남권 투자계획과 정부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서남권 투자기업들간 상호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개요 >

- 일시/장소 : 6.30(화) 15:00~15:45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 참석자 : 정부, 지자체, 산업계, 지역 유관기관 등 200여명
 - 정부 : 산업부, 재경부, 과기부, 국토부, 기후부 장관
 - 지방정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등
 - 산업계 :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애플 등
 - 지역 유관기관 : 전남대, GIST, 광주·전남테크노파크 등
- 행사 주요내용 : ①SK·삼성전자·애플 서남권 투자 계획 발표(각 기업),
②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산업부),
③서남권 첨단산업 입지지원 방안 발표(국토부),
④투자협약식

< SK, 삼성전자, 애플 서남권 투자 계획 주요 내용 >

이날 행사에서 SK, 삼성전자, 애플은 기업별 서남권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 및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삼성은 425조원을 호남에 투자하여,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 및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을 구축한다. 애플은 1조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한다.

<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 주요 내용 >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서남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①맞춤형 인프라 구축, ②투자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해 서남권(S.WEST)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을 범정부, 민간의 힘을 모아 총력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한다.

Water(물)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고 Electricity(전력)팹 가동을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도 신속히 구축한다. Site(부지)산업 단지 조성 기간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Talent(인력)Arm 스쿨,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반도체 혁신 성장 지원단은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 지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 방안과 세부 투자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반도체 특별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 보고하고 이를 총력 지원한다.

다음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가 제정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일거에 해소한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해 기업은 더 편히 투자하고 인력은 지방에 더 거주하고 싶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기업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7.1일부터 새로 출범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행정역량을 총동원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전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며 우수 인력이 서남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주거, 여가 등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서남권 첨단산업 입지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정부는 대규모 부지, 우수인력, 정주 및 교통여건 등이 **양호한 서남권 입지여건**을 토대로, 기업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서남권에 「**기업형첨단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해 나간다.

*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을 동시 실현하는 뉴공간 프로젝트로 6.29일 조성방안 발표

기업형첨단도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계획에 맞춰, 기업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모습으로 신속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 추진하고 부지조성·건축공사를 일괄·연계 수행하는 **패스트트랙(제도개선)**을 통해 조성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 등에 맞춰 **도시계획 규제 등을 완화**하고 **공공지원 임대전용 부지** 제공을 검토하는 등 **기업 맞춤형 입지**를 공급한다.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 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등 기업 연구와 창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여건을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여건도 지원**해 나간다. 또한 **기업형첨단 도시와 호남 고속철도·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간선교통망 간 연결성도 강화**하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도시 접근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만큼, **기업 투자를 신속 지원**하고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갖춘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실제 지역성장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 투자협약식 주요 내용 >

이어서 개최된 투자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와 주요 부처(산업·재경·과기·국토·기후부)가 참석하여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은 **서남권 지역에 대한민국 첨단산업 도약을 이끌 성장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상호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 서남권 지역에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투자**를 추진하며 각 부처는 서남권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관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 (산업부)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기반 및 정책 마련, 생태계 구축 지원 등,
(재경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 조정·지원, (과기부) AI DC 생태계 조성 지원,
(국토부) 산업단지, 정주, 교통 인프라 조성 등, (기후부) 전력, 용수 공급 인프라 조성 등

정부는 “오늘 발표된 896조원 투자금액은 서남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지도를 새로 쓰는 수준”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자 첨단산업의 새로운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것인 바, 기업들의 투자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국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4270)
		담당자	팀 장	김창완 (044-203-4145)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하영선 (044-203-4276)
			과 장	김민태 (044-201-3674)
			사무관	김보람 (044-201-3677)
			사무관	김효석 (044-201-3663)
			사무관	민영은 (044-201-3695)
		담당자	사무관	홍창빈 (044-201-3700)

